

노건엽 연구위원, 이연지 연구원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다양한 최저보증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저금리 심화에 따라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확대에 따른 손익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증의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 성과와의 연계, 위험 관리 전략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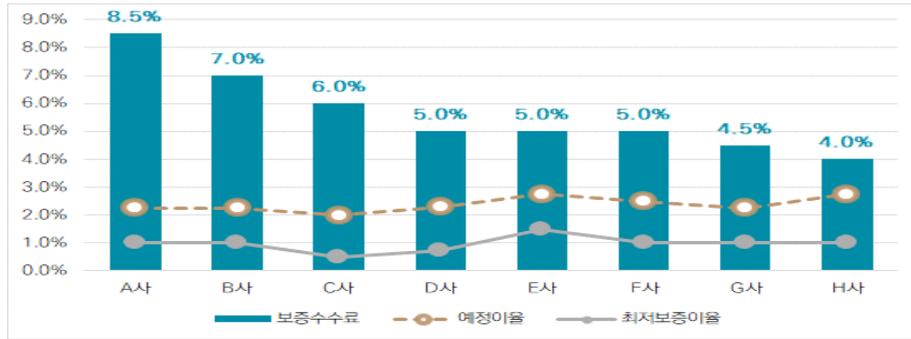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을 하회할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적정 수준의 해지환급금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다양한 최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사전에 정해진 예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을 하회할 경우 적립금이 과소 적립되어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해지나 사망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예상 보다 적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적립금 과소 적립에 따른 보장성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해지 환급금 및 최저사망보험금¹⁾ 등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최저보증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납부함
 -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변액보험과 유사하게 최저보증이 부가된 계약을 대상으로 평가하나, 평가대상을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으로 한정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2016년 4월 이후 신계약²⁾부터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함
-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누적 보증수수료와 시나리오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수준과 시나리오 가정이 보증준비금에 영향을 미침
 - 보증수수료는 영업보험료 대비 일정비율로 계산되며,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리스크마진 부가 방식과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음(그림 1) 참조
 - 시나리오 평가금액은 보증옵션을 포함하여 산출한 부채적정성평가(LAT) 금액에서 보증옵션을 제외하고 산출한 부채적정성평가(LAT) 금액을 차감한 값을 금리시나리오별로 계산한 후 평균³⁾한 금액으로 산출함
 - 부채적정성평가는 보험계약의 현금유출액(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에서 현금유입액(보험료, 보증비용 등)을 차감하

1) 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7.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함
 2)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부칙(2015. 12. 29)> 제4조(보증준비금 산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평가함
 3) 평균값은 경과규정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적용하며 2019년과 2020년은 시나리오별 평가액 1,000개 중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550번째에 해당하는 P(55)를 적용함

여 준비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임

-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계약자가 납부한 누적 보증수수료와 시나리오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누적 보증수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한 금액임

〈그림 1〉 회사별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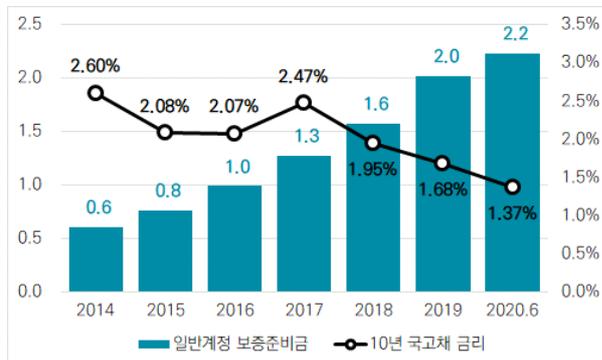
주: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사 상품공시

○ 최근 저금리가 심화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어 보증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2014년 말 대비 2.7배 증가한 2.2조 원을 기록함(〈그림 2〉 참조)
-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의 증감은 직접적으로 당기순이익 변동을 야기하는데, 2019년 이후 당기순이익 대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수준이 10%를 상회하면서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2〉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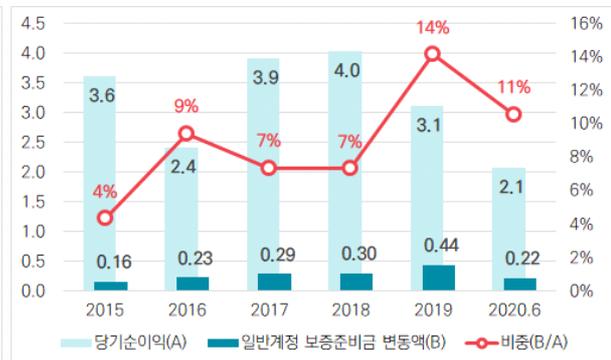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그림 3〉 당기순이익 대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변동액 비중

(단위: 조 원)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 한편, 현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 도입 시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현금흐름도 평가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일반계정 저축성보험은 계약자에게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함으로써 금리 하락 시에도 계약자가 최소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 IFRS 17은 모든 보험계약의 보증 및 옵션을 평가하므로 현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적립대상인 보장성 보험 외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보험 또한 보증을 부채평가에 포함해야함
 -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 규모는 상당하며,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일부 과거 판매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에 근접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부담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확대에 따른 손익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증의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 성과와의 연계, 위험 관리 전략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 개발 시 보증위험 부담이 발생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적정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산출해야 할 것이며, 최저보증이율의 경우 장기적인 이자율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만기가 장기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성과와 신상품에 대한 보증 수준을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보증준비금 부담이 자산운용 성과 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보증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재보험, 파생상품 활용 등 보증위험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